

월요광장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사람이란 무엇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애써 배우지 않고도 저절로 알게 되는 상식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존재라고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과정은 늘 불편함과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하는 일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치거나 부족한 타인의 시선이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관계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서 온전히 혼자 지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설명방 안에 혼자 있다고 해도 이미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타인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혼자 있어도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이 어느새 스스로의 시선이 되어서 자신을 통제하고 검열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투명인간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 사실 투명인간으로 변해서 통제받지 않고

타인의 시선, 지나치거나 부족하거나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자유를 가진 투명인간에게는 남다른 고통과 절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공상과학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1866~1946)다. 공상과학 소설의 고전으로 불리는 그의 소설 ‘투명인간’(1897)에서 작가는 그리핀이라는 투명인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의 괴로움을 말한다.

온갖 실험을 거쳐서 천신만고 끝에 주인공은 마침내 투명인간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리핀은 보이지 않는다는 권력을 이용해서 심지어 공포정치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까지 갖는다. 하지만 그는 뜻밖에도 투명인간으로서 누리는 무제한의 자유와 권력에 대한 만족보다는 ‘보이지 않는 자’가 겪고 감당해야 하는 좌절과 슬픔에 휩싸인다.

투명인간이 된 그리핀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겪는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람다운을 잃지 않는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잠거나 억제할 일과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는 없다. 반면에 투명인간이 누리는 권력과 자유가 정작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권력과 능력이란 무의미하다. 이런 뜻에서 투명인간이 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는 것에서 끝나

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그리핀은 투명인간이 되고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탐욕을 부렸는가를 깨닫는다. 결국, 그는 “나는 인간이 욕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던 거야”라고 고백과 함께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자 한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시 되고 싶은 것이다. 이런 그리핀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완전히 이기적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안전밖에 생각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그리핀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죽음뿐이었다.

웰스의 투명인간 이야기에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혐오가 함축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익숙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과 혐오감을 드러낸다. 누군가가 낯설거나 조금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일로 여긴다. 이러한 시선은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닌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다. 이 확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은 해롭거나 무의미한 존재라는 흑과 백의 논리로 세상을 보는 태도다. 그래서 그리핀의 투명성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명분이 되고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라고 낙인찍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소설처럼 자신의 욕망과 의지로 투명인간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족한 눈길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지 못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누군가 모습이 다르거나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보는 시선에는 혐오와 무관심이 얼마나 가득한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철저한 무시의 시선이다. 무시, 즉 시선을 주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태도는 없다. 지나친 시선만큼이나 시선을 주지 않는 것 역시 견디기 힘든 고통이고 형벌인 것은 마찬가지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라면 시선조차 주지 않는 것 또한 지옥이다.

서로에 대한 통제와 무관심만 있는 곳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에 놓인 물건들처럼 이유 없이 그저 함께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함께’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말한다.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삶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다. 관계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접촉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통제의 시선 대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며, 무관심으로 감은 눈 대신 지지하며 차분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관계는 시작된다. 삶이 문득 팍팍하게 느껴질 때 타인을 향한 ‘나’의 시선이 행여 지나치거나 모자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법조칼럼



안 순 레
법무법인 정훈 변호사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 직업상 주변인들로부터 다양한 사안의 법률 문제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최근엔 사망 보험금에 대한 질문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 특히 ‘사망 보험금이 상속 재산인지 아니면 고유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보험금은 종류도 많고 분쟁의 경우의 수도 다양하지만,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확실히 정리해 두면 보험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선 보험의 종류 및 형태와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보험 수익자가 누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권에 관하여

구로 돼 있는가에 따라 상속 재산의 여부가 결정된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된다.

보험 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는 상속 재산이 아니다.

다시 말해 보험 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을 하던 그렇지 아니하던)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가령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 포기하는 경우라도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해 사망 보험금은 상속 포기와는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다. 그 상속인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라도 다른 공동 상속인이 위 사망 보험금에 대해 상속 재산 분할 청구도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그 사망

보험금은 온전히 내 개인재산이라고 여기면 된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할 건데, 사망 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사망 보험금 청구를 하면 상속 포기가 되지 않는지, 피상속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사망 보험금을 뺏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지 말고, 내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본인 외에 다른 자들이 위 사망 보험금을 뺏아 가지도, 뺏아갈 수도 없는 만큼 보험사측에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면 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사망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상속인의 정월 합의도 필요 없다.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일 경우 법정 상속만 지분대로 상속인들에게 지급된다. 수익자가 지정돼 있을 경우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금융 상품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 재산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상속재산 조회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8월 31일부터 제공하는 ‘임시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http://www.gov.kr)에서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 뒤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사망 보험금이 상속 재산인지, 고유 재산인지’에 관한 부분을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봤다.

실제로 발생하는 보험금에 관한 상속 분쟁은 더 없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변호사인 필자가 보험과 관련해서는 관련 서적 및 자료를 찾아봐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위와 같은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담당하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 고



양 성 관
동강대 노인복지학과교수

올 가을에는 큰 선물을 받은 것만 같다.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다. 지난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은 참으로 영혼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의 아름다운 밤이었다. 지인의 초대로 우연히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1회 광주시 소년소녀 합창제를 보았다. 사실 나는 광주에 이미 소년소녀 합창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첫 번째 합창제라는 사실에 약간 의아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출연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내심 궁금해 하며 대극장을 찾았다.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더니 합창제는 금·토요일 이들 동안 진행되었으며 광주시에 있는 초·중학교 합창단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구의 시립 소년소녀 합창

가을 추억을 안겨준 값진 선물

단이 토요일 날 참석하였다. 또한 광주의 합창단도 광주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을 포함하여 몇몇 방송곡에 소속되어있는 소년소녀 합창단과 기존에 조직된 학교의 합창단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관심을 끄는 대목이 없어서 연주가 시작되자 눈을 감고 조용히 감상에 들어갔다.

그런데, 세 번째 합창단이 입장하는데 관객들이 갑자기 환호성과 함께 휘파람을 불며 열광하기 시작했다. 눈을 뜨고 입장하는 출연자를 보았다. 두 명의 도우미의 인도에 따라 입장하는 출연자의 걸음 걸이가 예사롭지 않아서 어느 단체인지 알아보기 위해 팸플릿을 보았더니 ‘광주파랑새 합창단’이었다. 2010년에 광주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창단된 합창단이다. 세 곡의 노래를 연주하는 동안 몸은 비비 꼬는 단원도 있었고, 자리에서 이탈하는 단원도 있었다.

지휘자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공연이 끝까지 잘 이루어질까 하는 조바심에 내가 더욱 긴장을 했었다. 음악적은 약간 부족할지 모르지만

세 번째의 ‘경복궁 타령’을 부를 때는 합창단원과 관객이 하나가 되어 열광 그 자체였다. 이후에 이어지는 연주들도 맑고 아름다운 선율이 나를 긴장하게 했고, 출연하는 합창단들에 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10여명의 단원이었지만 나의 귀를 의심할 만큼 아름다운 소리의 잘 훈련된 합창단도 있어서 깜짝 놀랄 만큼 행복했다. 어린이들의 맑은 영혼의 소리는 어른들의 훈련된 연주보다 나의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즐겁고 행복한 밤이었다. 마지막 연합합창 시간에는 객석의 어른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라는 노래로 참석한 어린이들을 격려해 주는 행복 한 시간도 있었다.

광주시 소년소녀 합창제는 이제 시작되었다. 보다 든든한 뿌리를 내려 건장한 나무로 성장을 위해 한 가지를 제안을 해 본다. 합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는 이 합창제의 정체성이라고 본다. 처음 시작하면서 참가 단체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기존에 이 름 있는 학교 합창단을 무대에 세웠겠지만, ‘광주시 소년소녀 합창제’이니 만큼 앞으로 참가 대상자는 광주시 소재 학생

들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 합창제를 통해 광주광역시 소년소녀 합창의 질적 양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좀 못하면 어떨까? ‘파랑새 합창단’이 관객의 열렬한 환호를 받은 좋은 예이다. 이 합창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의 소외받은 계층들을 찾아내어 합창을 통해 소년소녀들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문화가족도 좋다. 지역 아동 센터의 동아리 연주단도 좋다. 기회가 없어 무대에 서지 못했던 여러 단체의 소년소녀들의 꿈을 이루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합창제가 있는 이 날은 이번처럼 무료 입장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많은 광주시의 소년소녀들이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객석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무대에 선 친구를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장르의 다양성이나 질적 성장 등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더라도 일단은 이 지역 소년소녀들이 합창을 통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년 제2회 합창제를 기대해 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발전된 모습의 합창제가 이루어질 것 이라고..

社 說

한전 공대 과감한 투자 통해 세계적 명문으로

광주·전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한전 공대(가칭)의 밑그림이 나왔다. 그동안 국내외 공대 설립과 운영 사례를 조사해 온 한국전력 TF팀이 독립형 캠퍼스와 글로벌 에너지 연구소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엇그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유일 무이, 한전 공대 빅 픽처(Big Picture)를 꿈꾼다’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공대 설립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6개월 동안 세계 각국의 공과 대학을 벤치마킹했다”고 대학 설립 방향을 소개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한전 공대 설립 TF팀 김태근 부장은 “한전 공대는 미국의 실리온 벨리와 경쟁하는 전력과 에너지에 특화된 대학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R&D(연구·개발)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 혁명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기술 개발을 주

도하는 핵심 센터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은 한전 공대는 교육 중심의 운영을 벗어나 연구·개발 중심으로 가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수진 초빙과 뛰어난 학생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환경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한전은 이를 토대로 내년 초 세계 유수의 기관에 공대 설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단순한 공과 대학 설립을 넘어 광주·전남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두뇌의 결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청권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영남권 포항공과대학(POSTECH)을 뛰어넘는 초일류 대학을 만들려면 설립 초기에 과감한 투자로 세계적인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대학들도 경쟁보다는 협력과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토석 채취 산림 훼손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역세 명산인 장흥 천관산의 한 자락이 수년간의 토석 채취로 흉물로 변했다. 천관산은 호남 5대 명산으로 풍광이 뛰어나 봄에는 진달래가, 가을에는 억새가 장관을 이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지역민들은 후대에 물려줄 자연이자 관광자원인 천관산에 대규모 산지전용 허가를 해 준 행정 자체가 잘못됐으며, 허가를 해 줬으면 애초 목적대로 밭으로의 개간 여부를 제대로 감독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흥군과 군민들에 따르면 천관산 자락인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일대 임야(2만 9900㎡)는 지난 2011년 12월 산을 개간해 밭으로 조성하는 산지전용 허가가 이뤄졌다. 문제는 개간 사업이 3년 만인 2014년 12월로 끝났지만, 밭이 생기기는커녕 바위와 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지역민들은 개간 사업 기간 동안 밭으로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군청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수년 동안 덤프터적으로 1만대에 달하는 토석이 반출된 점에 미뤄, 개간 사업이 아니라 조경석 채취 사업 허가를 내 준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 결과 문제가 된 대덕읍 연지리 일대는 관산을 성산리 일대와 함께 천연 조경석과 자연석의 밀집 지역이었다. 상식선에서 산지전용 허가가 이뤄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원형 보존에 힘써야 할 자원인 셈이다. 더불어 이 일대는 구조상 흙이 적고 대부분이 크고 작은 자연석으로 덮여 있어 분식상 개간에 따른 경제성이 전혀 없는 곳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개발업자의 목적이 밭 조성이 아니라 조경석 채취·판매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군청의 행정에도 강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장흥군은 자체 감사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천관산을 훼손하는 더 이상의 산지전용 허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無 等 鼓

“그녀는 온 세상이 다 아는 민중의 지도자라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가슴으로, 당신의 역사를 써 주오. 그러면 독재는 끝나리니. 꺼져라, 꺼져라, 꺼져 버려라. 독재여!” 지난 2015년 11월 8일 지리졌던 미얀마 총선을 앞두고 아웅 산 수치를 지지하는 민중들이 즐겨 불렀던 ‘강인한 공작새’(The Strong Peacock)라는 노래다.

미얀마에서 ‘공작새’는 민주화의 상징이다. 그런 이유에서 미얀마 국민은 수치를 ‘미얀마의 공작새’로 여겼다. 또 수치가 선거에서 압승한 뒤에는 그녀를 ‘어

공작새의 몰락

머니’(mother)라고 불렀다. 오직 수치만이, 민중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선 투표를 했다는 표시로 왼쪽 새끼손가락에 보라색 잉크를 문힌 모습을 촬영한 인증 샷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집권에 성공한 수치는 미얀마 국민을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인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감내한 정치적 성자로 받아들여졌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수치에게 찬사를 보냈으며, 일부 지도자들은 수치를 인도의 간

디와 비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수치는 ‘미얀마 내 소수민족 로힝야에 대한 군부의 야만적 탄압을 방관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일부에선 “미얀마 최고 권력자가 된 수치에게 국제사회가 능력을 닮았다”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다.

군부독재에 짓밟혀 신음했던 광주는 지난 2004년 수치에게 광주 인권상을 수여한 데 이어 2013년엔 명예시민중

까지 수여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해 왔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수치

에게서 ‘한국 민주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광주의 모습을 보고 또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최근 수치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광주는 특정 정권에 의한 탄압과 소외를 오랫동안 경험해 왔던 만큼 한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인종 청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처참한 인권유린을 목인하고 방조한 수치는 ‘민주화 성지’ 광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홍형기 정치부장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